

월간 증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1 11월호



감사의 생활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 주신 은혜를 늘 감사 드리세” (새찬송가 572장 후렴)

감사의 제철을 다시 맞았다.

매년 맞는 감사절이지만 금년처럼 감회가 서릴 수가 없다.

태풍 「에그네스」의 영·호남 강타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주었다.

이와 함께 농부들이 봄과 이른 여름까지 땀 흘려 지은 농사가 태풍으로 인해 많은 결손을 갖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은 이런 모든 역경과 환난을 물리쳐주시고 풍년의 결실을 주어 축복된 감사절을 지내게 해 주셨다.

79년 10. 26 사태 이후의 한국은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의 회오리바람이 선회하면서 불신과 불협화음의 역순환을 오게 했고, 교회자세도 혼란과 분열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탄식과 저주의 절규뿐이었지만,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찢겨진 상를 싸매 주셨다.

무조건 감사찬송을 드리고 싶은 흥분이 있을 뿐이다.

이제 81년도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해본다.

1.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영국사람들은 교회앞에 「Think and thank」라는 말을 써 붙이길 좋아했다 한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이 말은 대답한 현실 속에서도 이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라는 명령으로 말아야 할 것이다.

흔히 잘못 생각하여 감사절은 농촌에서나 잘 지킬 일이며 도시에서는 예배드리고 한글하는 정도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행사로 취급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한 축복받는 일이 될 것이며, 감사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인됨을 자각해야 될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명절이고, 감사절만이 하나님께 향한 인간의 정성을 모아 드리는 유일한 명절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주일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2. 신앙적 결단

아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잠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삶은 인간적 기분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혹자는 (불신자의 경우) 삶 자체를 개인이 갖는 독단적 권리로 착각해서 생사(生死)를 제멋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미물,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기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저주가 앞서고 기쁨보다는 슬픔 속으로 치우치고 조그마한 환란과 고통이 오게되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허다하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서 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아왔다.

따뜻히 주의해야 할 일이고 고쳐서 모든 어려움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 가짐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감사절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제일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있도록 많이 바치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9권 제10호
통권 93호

- 11월호 차례 -

월간 충현

권 두 언	감사의 생활.....	손경수 · 2
이달의말씀	감사를 바로하면.....	김정인 · 4
감 사 질 에	이 가을에 드리는 기도중에서.....	이건숙 · 6
지 상 특 강	넙치는 감사생활을 위하여.....	이성근 · 8
감 사 기 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진실 · 12
감 사 시	감사의 절기 앞에서.....	한문철 · 13
여 행 보 고	해외선교 여행보고.....	김정인 · 14
편집실칼럼	새성전 건축의 현실.....	김종주 · 16
찬송가감상	늘 거두시는 주를.....	김하진 · 16
도 서 정 보	10월 중 들어 온 도서.....	도서실 · 17
새성전건축	보다 나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⑦.....	최 환 · 18
칼 빈 주 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⑪.....	김하진 · 24
해 외 선 교	선교사 · 선교지 소식.....	해외복음선교회 · 28
권 찰 수 첩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 ⑦.....	김원남 · 27
새 교 우	10월 중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명단.....	편집부 · 30
교 계 뉴 스	월간 교계 뉴우스.....	편집부 · 31
교 회 소 식	월간 교회 뉴우스.....	편집부 · 32
11 월 행 사		편집부 · 34
편 집 후 기		편집부 · 34
표 지 설 명	금년에는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처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금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감사를 바로하면

〈시50 : 23〉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를 바로하는 신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인 고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애국심으로 민족양심을 지키면서 살고 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었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입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므로 성도로서 천국시민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관이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시민권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된 것, 천국의 시민권 얻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긍지를 가집니다.

한걸음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세상은 험하고 자신은 약하며 사는 기간은 짧고 책임은 중하니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쉬지않고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어디서 만나게 되어도 낙심하는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참된 봉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 성도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1)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땅위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흐려져가는 것은 불행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다.

2)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때에 올바른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합니까.

첫째, 자연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연은총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입니다. 밝고 따뜻한 햇빛,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풍년을 주셨고 여러가지 경제파동의 어려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 안보를 허락하신 것, 이런 자연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요즈음 중공의 문이 차츰 열려 중공의 교회가 매주일이 다르게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곳에 300만 이상이나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마음대로 성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총, 이런 특별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2.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1)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잊지않아야 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에도 잊지 않도록 기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으로 찬송하며 영혼으로 찬미하는 생활이 참된 감사의 생활입니다.

2)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힌 죄가 있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받으며 회개하는 것, 천두천미하게 회개하는 일은 감사를 바로하는 방법 중 중요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 교인끼리 화목하고 서로 축복해 주는 생활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50 : 23〉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화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서로 기쁜 일,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며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바른
생활을 위한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5) 올바른 감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
버지의 허락을 기다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
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얻든
지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바로하는 생
활입니다.

3. 감사를 바로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
입니까.

1) 감사를 바로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자신도
이기고 세상의 악마와 환경도 이기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모자라면 세상에 지고 자신에게 지게 됩
니다. 승리는 감사에 있습니다.

2) 감사를 바로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학
생은 공부를 하는데, 농사꾼은 농사일에, 상인은 장
사에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은 감사 뒤에 생겨나게 되
므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넓
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안기워 영육에
부가가 되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만 하는 사람은 교
만하여 그릇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교만하므로 원망
만 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의 그릇이 깨
어졌기 때문에 이미 받은바 은혜도 쏟아버리고 새
은혜를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반역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아 영육에 아울러 세상에 나지 아니
함이 더 좋았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
을 때에 존경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후에 아
깝다고 애석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
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효자 효녀되어
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는 성공자, 장수하는 복
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앞에 진정한 효자 효
녀되어 감사를 바로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
사하여 기억하고 입으로 찬송하며 범한 바 죄를 회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자끼리 화목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은 생명바쳐 헌신하여
복을 전하는데 힘쓰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
아 세상에서부터 영육에 부자가 되고 세상 이별하는
날에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여러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김 창 인 목사

방송설교 안내

- 아세아방송 (1566KHz)

매주일 오후 7 시15분~ 8 시

(주일 3 부예배 실황)

- 기독교방송 (837KHz) -

매주일 오후 10시 - 11시

(주일 3 부예배 실황)

매 금요일 오후 11시

이 가을에 드리는 기도중에서

주님!

벌써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선 40줄에 서 있습니다.

이제야 뒤를 돌아보고 너무 많은 것을 받았음을 늦게야 깨닫는 바보입니다.

어쩌면 그리 강하게 주님의 사랑줄에 매달려 있었는지요.

이 나라의 아픔을 따라 살아온 뉘안길은 분명 세찬 바람속이 있습니다. 가난이 부랑배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달려든 참담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를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온 지혜가 내게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얼굴에 잔 주름이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넘치게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만 걸어올린 것 뿐이라고.

해지고, 달뜨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하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에 묻혀 무디어진 내 영혼을 주님은 조금씩, 조금씩 깨워주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전 어린애처럼 마냥 투정을 하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맡겨지면 요나도 그랬는데 어떠냐는 핑계를 주워섬기며 도망치려했던 적이 많았지요.

그러다 주님의 눈에 내 눈을 맞추고 서면 부끄러워 못내 잠을 못 이루고 펄펄 울었지요.

주님!

그땐 가슴이 뜨겁도록 주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눈물을 닦고나면 항상 전 바빴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끼어 그들에게 뒤질세라 열심히 뛰었습니다.

봄이면 더 극성스럽게 랜지, 데이지, 페츰니아, 금잔화, 프리물러 더미를 해치며 욕심껏 꽃시장을 해매고 끌라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건 숙

(소설가)

그래도 모자라서 주님앞에 서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라고 어리광을 떨었지요.

그런 저에게 금년엔 참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디 보자, 듬뿍 줄 테니 감당하나” 하시며 제 잔이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전 너무 좋아 경중거렸지요. 하늘을 날 듯 말이에요.

시간이 갈 수록 그것이 차츰 무거워 짐을 알고 “아이쿠! 주님! 왜 이런 걸 주셨어요. 너무 하셨어요.”라고 외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주세요. 너무 이기주의자이고 욕심쟁이인 저를.

벌써 가을을 맞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은 두 손이 빈 것을 유난히 느낍니다.

열매를 푸짐히 뺏어내는 나무들을 볼때 저는 그들처럼 뺏어낼 것이 없습니다. 밤나무가 둥글고 알찬 알밤을 떨구듯, 저도 알밤을 떨구어야겠는데....

주님!

또 일년을 주십시오. 다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크고 아름답게 맺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일생의 열매를 맺는 죽음 앞에선 이런 어리광을 부리지 않도록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번 가을에도 전 주님 앞에 엎디어 있습니다. 자연이 맺어낸 결실들을 보고 부끄러워 하며 이 말만을 또 되풀이하는군요.

“올해도 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생활을 위하여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범사에, 더욱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1. 감사절기의 유래

(1) 감사절은 구약에서부터 유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삼대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유월절
-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맥추절
- 추수를 다 한 후 감사하여 지키는 추수절, 곧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2) 근래의 기원 - 미국의 청교도가 시작

이처럼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추수감사절이 근대에 와서 많은 나라나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지지게 된 유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간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다.

영국의 정부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함으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1620년 9월 6일 영국으로부터 신대륙 미국을 찾아 온 사람들은 남자 78명, 여자 24명 합 102명이었다.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떠났는데 3개월에 걸친 대서양 횡단 항해 중 11월야 이 수가 미국에 도착했다. 항해 중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당시 미국은 넓은 황야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에 굶주림과 짐승의 위협이 닥쳐왔다. 그들은 대부분 도시생활을 해 온 지식층이었으므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땅을 파는 것은 심히 고된 노동이었다.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절망과 무엇보다도 굶주림 때문에 절반이 죽어갔다. 이듬 해 봄에 어떤 친절한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옥수수·완두콩·밀·보리의 씨를 주고 씨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갔다.

그해 가을 문자 그대로 피와 땀, 눈물을 흘려 거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을 초청하여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 이것이 매년 계속되자 1864년 링컨대통령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설정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 축제일일 정하노라”

그로부터 전 세계는 11월이면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우리 한국은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셋째주를 감사절로 지키고 있다.

이 성 근 목사

(본 교회 협동목사)



2. 감사란 말의 뜻

감사는 “유 카레스티아” 즉 행복한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행복한 은혜는 반드시 희생하는 자가 있기에 나오는 것이다. 마치 학생들의 학창생활의 즐거움에 선생님의 숨은 희생이 있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희생이 있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청소부들의 희생이 있듯이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이 있게 마련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국가에는 위정자가,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의 행복들을 만든 것이다.

우리는 늘 그 뒷면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만물을 가지고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우리전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기적으로 달라고 하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다.

3.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사람으로 지어 주신 것을 감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며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로 창조했다. 사람은 사실 천사보다도 그 존재가 더 높다. 그래서 우주를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는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2)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

인생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밝은 태양, 달과 별을 주셨다.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거저 주시면서도 한번도 그 값을 요구하지 않고 계시다.

또한 육신의 영양이 되는 오폭백과를 농사가 잘 되게 하여 풍성히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이 저대한 일반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을 빼앗아 가는 장애물이 있다. 즉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안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서 빼앗아 가는 못된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이다.

불신자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으레히 올 것이 온 줄로만, 자연히 있을 것이 있는 줄로만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이다.

또 무엇을 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는다. 농사를 해도 자신이 뿌지런 했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업도 자신이 경영을 잘해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 무엇을 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는다. 농사를 해도 자신이 부지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업도 자신이 경영을 잘해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광야에서 선민들이 굶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하던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치신 것이다.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공든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밥을 주고, 입혀 주고 하여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어린이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저 물을 주는 것 뿐임을 바로 알자.

오직 하나님만이 주동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두번째 이유는 우리의 탐욕이 감사를 막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형을 고소하는 자가 나오는데 고소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탐심이 많아서 재산을 나누다가 고소를 한 것이다. 탐심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선민들이 굶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하던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치신 것이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지만 몸이 약해 병원에 입원하여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건강을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튼튼한 몸과 주먹을 주셨다. 나가서 활동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다. 왜 불평이 많은가. 마음에 탐심이 도사리고 있으니 불평을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

(3)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이야기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이야기이다. 영국 왕의 신앙 탄압과 부패에 항거하다가 핍박을 받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가게 되어 1620년 9월,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3개월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 메사추세츠의 프리마우스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청교도들은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고 낮설고 물설은 이국에서 풍토병에 걸려 반이나 죽어갔다. 살아 남은 자도 비틀거리고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여 줄 정도의 건강한 사람은 불과 5, 6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자유로 감사가 충만하였다. 고생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추수한 곡식과 과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들고 나와 감사를 드렸다. 닥쳐 온 겨울 앞에 그들 자신은 집도 없이 겨울을 나야 했지만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학교를 지었다.

이와 같은 청교도들은

- 하나님을 믿고
- 노동을 사랑하며
-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그들의 생활 신조로 삼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시고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

사람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반
딛불과 같은 생활일 뿐이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무
력한 존재일 뿐이다. 그 어느 누구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
으로도 이 죽음을 헤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모든 인간을 죽
음 앞에서 절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 이상의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 가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놀랍도록 아름답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를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교회, 나라에게 주실 것이다.

멕시코에서 미국에 금을 캐러 온 사람의 편지에 “우리는 금을 캐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
미대륙에 왔으나 가난하게 되었고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하여 재산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데 부
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땅을 파며 고생을 할 때 그들이 세계의 패권자가 될 줄은 꿈에
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세계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닌가.

북녘땅에는 신앙의 자유를 잃은 지가 35년이 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자유롭게
출석을 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4.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족하지 않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나그네며
여관과 같은 이 세상에 걸어가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성경에 나타난 젊은 법관의 욕망은 우리 인생의 욕망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물기를 『어떻
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는 것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반딛불과 같은 생활일 뿐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가 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창고를 넓게
지어 거기에 모든 것을 가득 쌓아놓고 자기의 영혼에게 “영혼아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먹고 즐기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영혼을 오늘밤 거두어가면 네
에 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그 어느 누구의 권세와 위엄과 능력으로
도 이 죽음을 헤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모든 인간을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 이상의 무슨 감사
가 있을 수 있을까. 비록 육신은 가난하고 껍들지만 우리의 영혼이 혼란과 무질서와 파멸에서 영
생의 은혜를 받았으니 큰 감사가 아닌가. 육신의 생활은 실패하여도 감사할 것은 영혼의 은총
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내일 죽는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했다. 영생하는 복을 간직한 사도에
게는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하며 영혼에서 우려
나오는 감사를 한 것이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백성으로써 우
리는 늘 감사하며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겠다. (*)

= 감사기도문 =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진 실

(조동부전양 2번)

하나님 아버지.

벌써 눈에는 황금 물결이 춤추고 곳곳마다 오곡백과가 풍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부들이 모내기를 못해 밭을 동동 굴리던 일이 바로 었그제 일인것만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정말 어려웠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가 오지않아 모내기를 못하고 또, 애그니스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 농부들은 물론 온 국민이 애를 태웠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 풍년이 되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밤, 사과, 배 과일들이 서로들 자기들에 고운 모습을 뽐내고 있고 들에는 누런 황금 곡식이 속삭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걸작품이랍니다. 저희 엄마께서도 과일들을 보시며 “참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시? 저 과일들이 모두 다 이쁘게 생겼지?”하고 말씀하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저는 한가지 결심을 해요. 여태까지 전 추수감사절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뻔하게 알면서도, 형식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몸을 다 드러도 부족할 터인데 형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느 추수감사절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보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감사시 □

감사의 절기앞에서

여름의 후덥지근한 흔적들이 서서히 식어져가고,
다시 우리네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가을의 들녘으로 발을 돌린다.

태초의 모습으로 부딪치는 순수한 대지의 내음 속에서
시름진 세파속에 헤메이며 떠다녔던 영혼 깊숙이
따스한 주의 손길을 만난다.

아스라한 들녘의 노오란 황금빛 대비속에,
마음의 빈함에서 오는 역설의 웃음으로
허탈함을 깨뜨려준다.

가을 빛의 끊임없는 대지를 향한 축복속에,
구리빛 얼굴에 송글한 땀방울 흐르는
농부의 모습이 커다랗게 환희를 맛보게 한다.

가을 들판에서 만날 수 있는 창조주의 놀라우신 모습,
의연한 손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 손길 속에서 다시 감사절을 기억해 낸다.

어렴풋 어릴 적에 한웅큼 잡은 가을의 풍요로움으로
무의식의 감사를 드렸던 순박한 기억속에
여물어가는 주님의 모습이 부딪쳐 온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쳐며..."
홍겨운 아이들의 합창속에서
가을속에 퍼지는 천성을 향한 외침이
가을의 대지를 적시는 주의 손길을 멈추게 한 후,
어둡고 절망에 물든 우리들의 영혼속에서
뿌듯한 은혜의 빛깔들이 보람과 열매로서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를 갖게 한다.

이제 가을의 높은 빛속에서
그분의 호흡이 들리니
삶의 평안속에서
다시 이 날을 맞이해 본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한 문 철

(정년부 회원)

지난 6월 22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8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9월 9일 귀국할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여행에는 특히 본교회 협동목사로 수고하시는 이종윤목사님이 동행하여 여러모로 도와주셨다.

1. 여행목적

1) 구미 각국에 있는 소위 “성공한 교회” 또는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교회 성장의 성공사례를 연

함께 한 이종윤목사는 26회의 특강을 하기도 했다. 방문한 나라와 도시는 다음과 같다.

- 1) 서독-프랑크푸르트·미스바덴·뷔츠브르크·하나우·마인츠·베를린·함부르크·뒤스부르크·본·캄프리트취트·도르트문트·뉘른도르프·퀵른·비데니스트·다카우·튜빙겐·뮌헨·하이델베르크
- 2) 영국-런던·옥스포드·에딘버러·성안드류스·글래스고우
- 3) 덴마크-코펜하겐

이종윤목사와 함께, 80일간, 구라파 중심으로

복음사업에만 전력하자

충현의 미래 청사진계획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구하여 앞으로 충현교회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충현교회 미래 청사진」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려고 하며

2)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우리 교포들을 찾아가서 믿음으로 위로, 격려하여 저들로 하여금 조국과 민족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협조케 하며, 이미 세워진 교포교회를 통한 현지선교 및 공산권선교를 위한 동력화(動力化)작업을 추진케 하며, 아직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 새로운 선교지를 물색하고

3) 공산권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 및 관심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북한선교회와 연합선교를 형성케 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여행의 목적을 정했다.

2. 여행한 나라 및 도시들

상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금년에는 주로 구라파의 선진제국들을 순방했다. 특히 8월중에 서독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 1회 「'81 유럽전도대회」에 참석, 주강사로 대회를 하였다. 이번 여행은 11개국의 40여 도시를 순방하며 총 28개 교회를 방문하여 수양회 및 부흥회를 통해 56회의 설교를, 인터뷰, 좌담회를 8 회 가졌다.

- 4) 화란-암스텔담·캄펜
 - 5) 불란서-파리·율리언스·리옹
 - 6) 석바나-바젤로나
 - 7) 오지리-비엔나
 - 8) 스위스-츄리히·제네바·로잔·바젤·인스부르크·라브리
 - 9)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 10) 벨기에-부르셀·위터루
 - 11) 미국-로스앤젤레스·볼티모어·뉴욕·팜도
- 한편 이 여행 기간중 이종윤목사는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신학학회(SNTS)에 참석했고 동독에도 잠시 다녀왔다.

주로 유럽대륙에서 활동한 우리 일행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를 전세내어 이종윤목사가 직접 운전하며 8,000여km를 다녔다.

3. 여행을 통해 얻은 것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여러면에서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구라파를 집중적으로 다니며 보고 들었기에 구라파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 1) 구미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배울

〈스위스에서 알프스산을
배경으로 - 좌로부터 이
종 윤·김창인목사와 최
석주장로〉



수 있었다.

2) 구미교회가 오늘날 쇠퇴기에 들어선 원인을 신학적, 사회적 가치관의 변동에서 찾아 보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 사회에는 아직도 부흥일로에 있는 교회가 있어, 그같은 교회가 성장하는 원인을 찾아보았다(영국 런던의 All Soul 교회, 독일 백림과 쾰른의 침례교회는 좋은 예다.)

4) 스위스 알프스산 언덕에서 은둔자처럼 움크리고 앉아서 현대문명에 강한 도전을 하고 있는 F. Se-haffer 박사는 L₂ ABRI Fellowship을 통해 우리 교회 선교사 지망생들을 단기 과정으로 훈련시켜주기로 약속했다.

5) 교회내 노인과 병약자들을 심방하는 간호원 제도사제도, 장로선출을 위원회나 제직회에서 하는 제도 등 제도적 개혁을 요청하는 몇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시계공원 앞에서 - 좌로부터
김영휘·김창인·이종윤목사와 최석주장로〉

6) 구미 한인교회 교역자 재훈련 문제가 시급하다. 가능하다면 세계 해외동포 교역자 수양회를 구라과에서 개최하면 좋겠다.

7) 로마, 밀라노 등 몇곳에 선교사 파송이 시급하다.

8) 함부르크를 비롯한 몇몇 항구도시에서 선원 선교를 함으로 공산권선교에 크게 도움을 줄것이다.

9) 구라과 도처에서 충현교회 설교 녹음 테이프를 요청했다. (독일의 육고기선교사에게 테이프를 보내어 각처에 보급토록 함이 좋겠다)

10)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충현교회 미래 청사진 작성을 위해 3회에 걸친 「충현교회 세미나」를 개최(81년, 82년, 83년)하고 싶다.

4. 결론

정말 이번 선교여행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 간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물심으로 염려하며 협력하여 주신 국내의 교계지도자 및 관계인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모든 정성으로 기도로 후원해 준 충현교회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하며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사업에만 전력할 것을 온 성도들과 함께 다짐한다.

선교여행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큰 꿈을 가졌듯이 우리는 평양에 가서 부흥회 하는 날을 꼭 보아야 할 것이다.

새 성전건축의 현실

김 중 주

지금 한창 강남의 논현동에 신축중인 충천교회 신축교회당은 그 규모면에서 과히 한국교회 사상 초유, 최대의 규모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대외적인 각종 모임과 지상을 통해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성전 건축에 10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100억을 선교사업이나 인재양성에 투자한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외형적인데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등이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런 비판의 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내의 공사적 모임에서 지금도 가끔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밖에서는 어떤 비판의 말이 무성하더라도 성전건축의 골조 공사가 10월말 현재 90% 진척되고(전체 공정의 28%) 있는 현재에 성전건축의 당위성을 논할 때가 아니다. “탄사에 정한 때”가 있는 법인데 지금은 기도할 때요, 일할 때요, 헌신할 때이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할 때가 아님을 명심해야겠다. 우리 모두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말하기 좋다고 해서 말을 뱉어버리면 그만인 것 같지만 축복의 말, 저주의 말도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

더 나아가서 새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를 전문기구를 두어서 연구해야 할 것이고 각 부서에서는 그 좋은 시설을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와 나가서 세계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중지를 모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헌신할 때인 것이다. 우리가 그런 비판의 말들을 접어놓고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극한 가난에 처해서도 기쁨으로 넘치는 헌금을 한 것을 본받을 수 있다면 새성전 건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새성전은 완공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해야 좋겠는가 각자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늘 거두시는 주를

(새 574장)

늘 거두시는 주를 곧 찬양하리라
기쁨의 목소리로 곧 찬양하리라
해마다 추수할 때 더 많이 추수케
늘 거두시는 주님 더 많이 주시리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다.

인간에게 추수하는 즐거움 이상 더 큰 즐거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다.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백성은 찬양해야 할 것이다. 곡식과 과일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인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 추수는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아니 금년 나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본다면 어느 정도 추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물질적인 추수가 풍성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해인가처럼 자만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다만 더 많이 추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뿐이다. 오히려 금년 일년동안 하나님 앞에 맺은 영적 열매가 있었다면 그것을 더욱 더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영적 열매를 우리 생활속에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열매를 맺어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축복하시니
저 넓고 넓은 사막 다 푸른 옷입고
저 산을 춤을 추며 늘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축복하셨다. 그저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이다.

이 찬송은 본셀(J. S. Monsell 1811~1875)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고 16세기 독일 민요곡에 붙여 부르는 찬송이다.

금년 추수 감사절에도 “풍성한 은혜받아 추수한 곡식을 주 하나님께 드려 참 감사”(3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10월 중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참고서

- 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사대 교육연구원편. 배명사, 1981.
- 2) 성서백과대사전: 성서교재간행사, 1981. 26 cm

2. 주석

- 1) 예레미야Ⅳ: 칼빈, 존저. 성서교재간행사, 1981. 22cm
- 2) 풀빛성경주석: 마가복음 상·하, 누가복음 상·하, 고린도전서 상, 데살로니가 전·후서, 풀빛성경주석번역위원회, 보문출판사, 1981.

3. 기독교회사

- 1) 한국의 기독교회사: 민경배저. 대한기독교서회, 1980. 124P.
- 2) 일본기독교회사: 澤正 彦저. 대한기독교서회, 1980. 196P.

4. 조직신학

- 1) 기독교 세례론: 머레이, J저. 김소영역. 대한기독교서회, 1980. 144P.
- 2) 그리스도의 죽음: 녹스, 존저. 채위역. 대한기독교서회, 1980. 186P.

II. 기증도서

- 1) 성경에 나타난 찬송: 이효은저.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274P. (이효은강도사 기증)
- 2) 낮은데로 임하소서: 이정준저. 홍성사, 1981. 257P. (김차철선생 기증)
- 3)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크라크, 마크저. 김형섭역,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김차철선생 기증)
- 4)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한국창조과학회편, 1981. 229P. (김창인목사 기증)

□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
.....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
.....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
.....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
.....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
.....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
.....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
.....도에서 우리는 전교인들을 향해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종현」편집실.....

◇ 책소개 ◇

김홍전 지음

信仰의 道理

백함출판사 · 154 P · 1500원

요즈음 신앙과 생활의 일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선교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이제야 그런 이야기가 꽤 심각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좀 묘한 기분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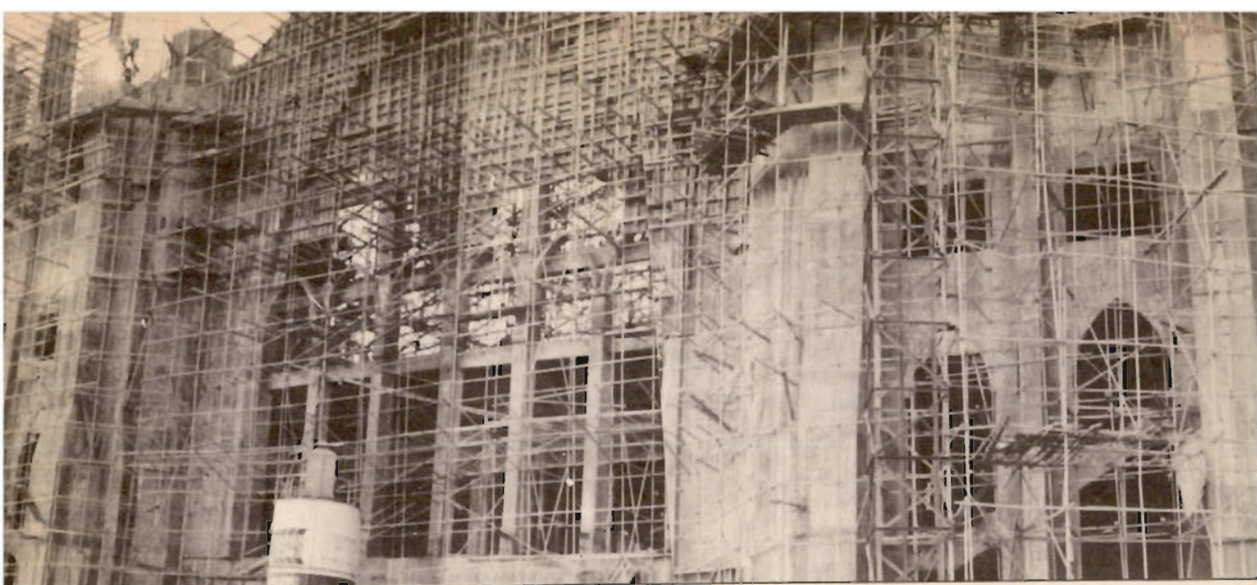
이처럼 신앙과 생활의 문제를 떼어서라도 생각하게 된 것은 그것의 중요성과 실제성이 직접적으로 각자의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꽤 오랫동안은 이 문제가 제대로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많이 이야기될 것 같다.

신앙의 생활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꽤 먼 이야기같이 들리고, 또한 현실감이 없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원동력 역할을 하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참말로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건만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생활화를 부르짖기 이전에 말씀에 대한 그야말로 권세있는 교훈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인 것이다.

김홍전박사의 「信仰의 道理」는 이 면에 있어서 뛰어난 책이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또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말씀·기도·예배·교회에 대한 강론을 그대로 녹음, 정리하여 만든 책이다.

너무나도 많이 강조 받아와서 알고 있는 말씀·기도·예배·교회에 관한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하여 권위있는 말씀앞에 겸손히 손잡게 하는 귀한 책이다.

이 형 수 집사 (월간종현 편집부장)



〈10월 20일 현재로 진행된 새성전 건물〉

□ 새성전건축을 위한 해외 여행보고 ⑦ □

보다 나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 환 집사

(새성전건축 현장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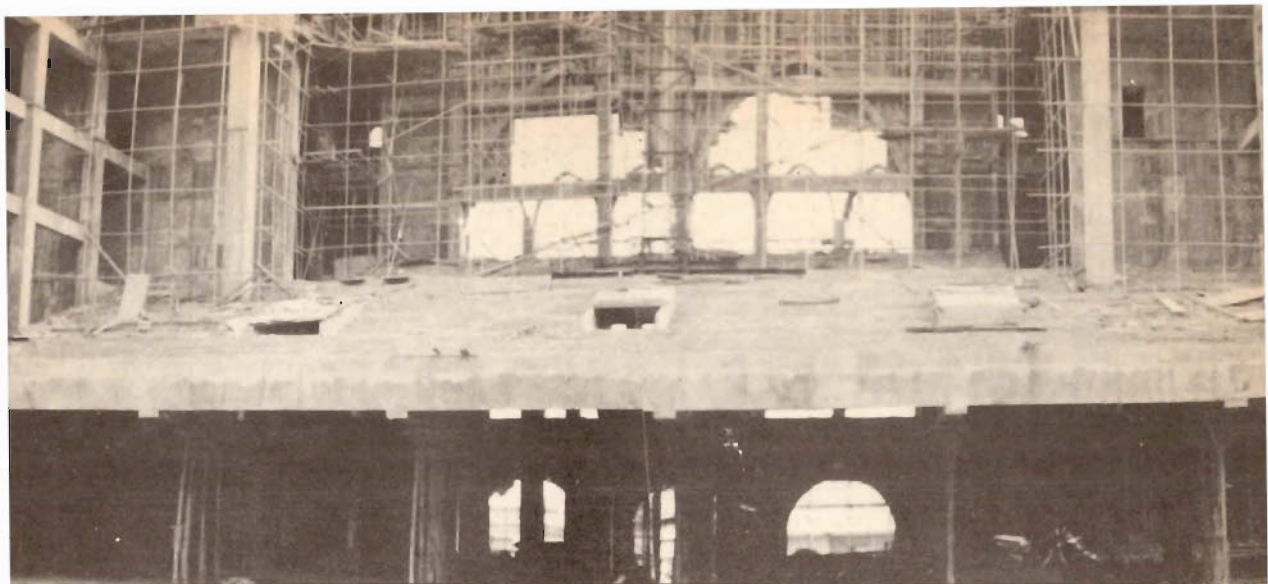
□ 프랑스편 □

23일째 되는 날 1981년 1월 28일
우리 일행은 파린 비행장에서 8시
45분 비행기로 프랑스로 향했다.

비행기는 1시간 걸려서 프랑스 공
향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먼저 파
리 중심가 가까이에 숙소를 마련했
는데 숙소 이름은 웨스트·엔드 호
텔 (West end Hotel)로서 자그마하
면서 조용하고 깨끗해서 분위기가
참 좋았다.

짐을 다 풀어 정리하고 나니 시간
이 오전 11시가 좀 지났다. 파리
에 거리를 줄이려들 겸 시내를 걸닐
면서 시가지에 나란히 서 있는 건물
들을 보니 작은 건물이나 큰 건물이
나 모두 거의가 60~100년이 다 넘
은 건물들로서 고전적이며 제국주의
적인 맛과 고풍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 일행은 에펠탑이 있는 곳으
로 가서 시내구경을 하고자 하였으
나 안개가 끼고 흐렸기 때문에 시내
를 내려다 볼 수가 없었다. 탑에 대
한 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건대 아마
도 로마의 유명한 상징이라면 콜로
세움-야외 경기장이지만 프랑스
에서는 이 에펠탑이 아닐까 하고 생
생각되어 졌다. 1889년 세계 박
람회때 세웠다.(이때가 산업 혁명때
이기도 하다.) 건축공학자인 구스타



(강대부분에서 올려다 본 3층(내부))

프 에펠이 세웠는데 이 철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건축에서는 건축미나 구조학에서 획기적인 발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다. 이 탑의 높이는 320m이고 1차로 115m를 올라갈 수 있고 2차로 274m를 올라갈 수 있으며 날씨가 맑을 때 전망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볼 때엔 70km 거리까지 멀리 볼 수 있다고 한다. 전망대 위에는 식당과 커피숍이 있어서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루브르 박물관 쪽으로 가서 오후에는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 하였다.

이 루브르 박물관(Louvre Museum)은 본 궁전 부분은 건축양식으로 볼 때 르네상스(Renaissance)식으로 되어 있지만 동쪽부분의 궁전은 바로크(Baroque)양식이라 한다. 이 루브르 박물관은 당초 1665년 프랑스 재상인 코르넬이 로마에서 베르니니에게서 바로크식 양식으로 설계도를 입수하여서 고전주의의 방향을 지양하고 고대적인 요소에서 아카데미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서 건축 설계는 크로트베로가 작성하여 1667년부터 1673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각품이나 미술품들은 우리가 듣던 그대로 본 지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

도로 우리가 학교다닐 때 미술시간이나 역사시간에 배운 것 이상이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그런 곳은 가서 봐야 알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일행은 앞으로의 일정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 내부를 되는데로 대충대충 지나쳐 버렸다. 음미를 하면서 보자면 7일간은 보아야 다 볼 것 같았다. 시간이 너무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다. 박물관에서 밖에 나와보니 벌써 어두워져 갔다.

24일째 되는 날 1981. 1. 29 목요일 오늘 일정은 장병기념관(Invalides)과 세느강가에 있는 노틀담 사원과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세크리크·큐어 바실릭(Sacre-Coeur Basilic) 성당 등을 방문코자 계획을 세우고 먼저 장병기념관에 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것은 나폴레옹의 묘와 그가 전쟁할 때, 대관식 때의 장면이 벽화로 그려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우리의 신앙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 즉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란 유명한 말과 자기가 왕이 되는 대관식에서 추기경이 띄워 주는 왕관을 자기가 직접 빼앗아 썼다는 점들을 보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영웅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

광 돌리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무리 왕이라 할 지라도 인간일 뿐대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입장에서 나폴레옹의 불순종하는 말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 같은 말과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다. 나도 우리 애들이 중학 3학년쯤 될 때 이곳 프랑스에 여행을 시켜서 먼저 이 나폴레옹관엔 견학하게 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실감나게 느끼게 할 것은 물론 프랑스와 문명, 예술, 문화를 머리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준다면 공부하는 의욕이 생길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꾸준한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외국어를 배워서 익혀야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넓은 세상의 것들을 배워서 우리나라 문화, 문명에 사용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도 상상해 보았다. 모든 것이 당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고 보지 못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이고 받아 보지 않으면 주는 것도 모르는 것이며 상상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느낌조차도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문밖의 일을 모르는 법이라 생각한 다. 이 장병기념관은 건축가 헬트인·만셀이 설계하여 1679년부터 1706년까지 건물을 완성했으며 이 건물의 특징은 4각형의 평면위에 정면의 우아한 모습으로 장식한 원주의 2주형 형식으로 가운데 돔의 탑이 107미터, 위에서 태양 광선이 시작마다 바뀌는데 내부의 금도금한 조각에 부딪쳐서 나폴레옹의 무덤인 관이 돌 보이고 있었다.

기념관에는 뒷쪽 정면에 크고 웅

장한 예배당이 있고 나폴레옹 동생의 묘와 두 사람의 장군의 묘도 있었고 예배실 천정쪽에는 각국의 군대 표시 기를 죽 걸어 놓았고 본전 양측 별관 그때 당시의 군대숙소에는 시대별로 군대의 발달과정을 전시해 놓았다. 프랑스의 군대역사는 이곳을 방문하면 한눈에 읽어볼 정도로 전시해 놓았다.

이곳에서 나와 노틀담 성전으로 갔다. 택시에서 내리니 노틀담 사원의 광장에서 내렸는데 내리자 마

자 우리 일행의 입은 딱 벌어졌다.

바로 이 노틀담 사원은 세느강변에 있는데 주후 3세기 경에는 이곳이 세느강이 흐르는 주위의 제일 큰 섬으로서 시민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크리스도교의 중심이기도 했으며 로마시대로부터, 크리스도 교회의 교회당의 장소로 1163년 모리스트·스트리안 사제(신부)가 안채부터 짓기 시작하여 복도나 정면부분은 에트, 스트리 신부때 마쳤는데 1200~1245년까지 탑을 마쳤다.

사실상은 그후 건축가 피에르트·시엘이란 사람의 지휘하에서 1250년에 착공하여서 정면북쪽의 외부 마감은 그후 8년후에 마쳤으며 대성당은 1345년에 완성이 되었다. 이 노틀담 사원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랑스 초기 고딕건축으로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보겠다.

평면은 5랑식이고 넓은 신랑과 좁은 측랑으로 구성되어 버팀기둥 사이에 니치 형상으로 설치된 방법은 프랑스 고딕에서 흔히 쓰여진 방법이며 내부 구성은 코리산형의 주두로 4개의 아치열(포인티드 아치)을 받들고 있다. 이것이 6분법으로 된 볼트(Vault) 천정을 지지하고 있는 강직하고도 준엄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프랑스 고딕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고딕의 기본형은 다른 유럽 고딕과 같으나 남부 프랑스 고딕은 로마의 영향력 때문에 천장을 형성하는 침두 아치(볼트)가 높고 전혀 다른 스타일을 이루고 있다.

지붕의 경사가 심하고 서쪽의 종탑위의 관, 첨탑, 뜰 버팀기둥, 높은 창살의 창문등은 전형적 프랑스 고딕의 특징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프랑스의 고딕은 영국의 고딕보다 반세기가 앞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고딕의 연대는 초기는 1150~1200년이고 기하학적인 아치와 창살이 특징이고 건축양식이 '로마네스크' 건축스타일에서 고딕스타일로 옮겨지는 과도기 스타일이며 전



(노틀담사원의 정면)

성기 고딕은 1200~1300년 차륜창(Wheel Window)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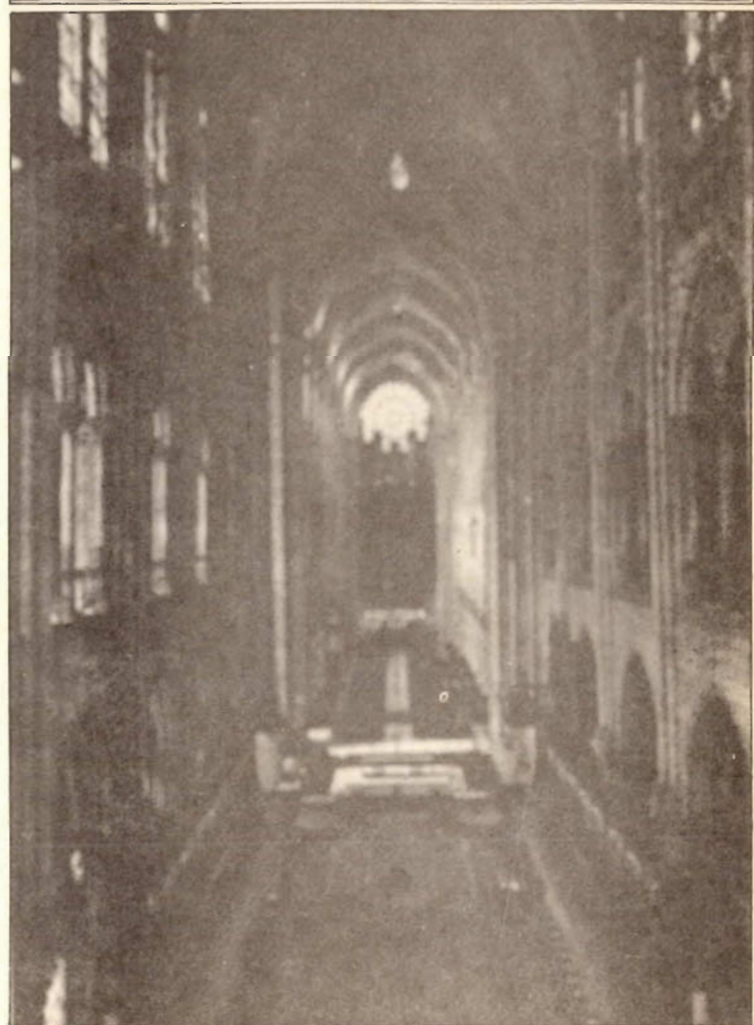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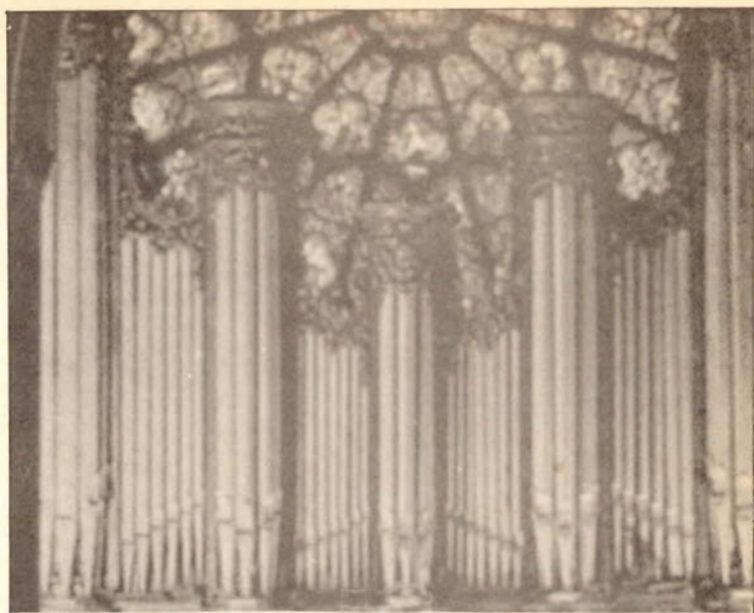
후기는 1300~1500년 까지를 말하며 화염같은 창살모양이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노틀담 사원의 건축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바실릭 성당쪽으로 갔다.

옛날부터 몽마르트는 성지로 알려져 왔다. 파리의 초대 카톨릭 주교인 디오니시오·앵드니가 이 언덕 밑에서 순교한 이래 이곳은 치명자들의 산이란 뜻으로(몽데마르티르)라고 불리웠는데 이것이 차츰 변형되어 몽마르트라는 이름으로 통용하였다고 한다. 빨라도, 잔다크, 데레사등 성인들이 이곳에 둘러가기도 했고 시인 막스자콥이나 화가 우스트 릴로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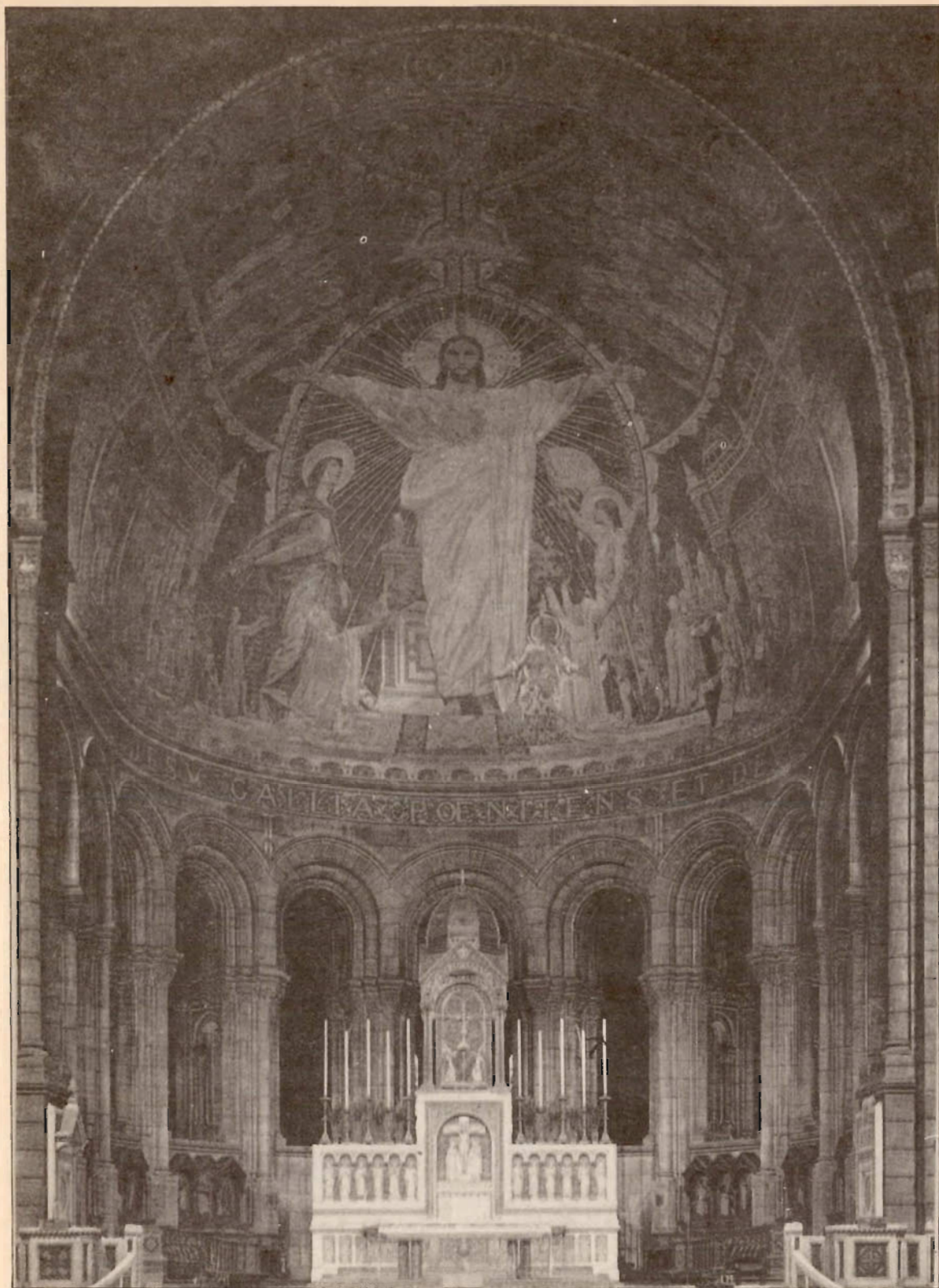
이 성전의 유래는 프랑스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큰 시련기였던 1870년 독불전쟁(일명, 보불전쟁) 당시 프랑스 국민은 예수 그리스도께 국가를 전쟁위기에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프랑스의 국회는 성전 건축을 법으로 정하였는데 실제로는 전국에서 헌금한 거금들이 모여 건물을 완성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나 국가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부나 신자들이 뚝뚝 뚫쳐서 완성한 성전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가 아바디란 사람이 이 성전을 설계할 때는 자신이 복원공사를 지휘한 바 있는 메리피의 뽕프롱 성당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건축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식이 절충되어 설계된 이 몽마르트 성전은 전체 길이가 100미터나 되고 정문 현관을 중심으로 그 양면 상부에는 루이왕과 잔다크의 거마상이 나온다. 건물 전체는 4개의 적



〈노틀담사원의 큰 파예프 울겐(上)〉

〈노틀담사원 내부(下)〉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바실락 성당의 내부》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바실락성당의 전경)

은 원형 돔지붕과 65미터에 달하는 한개의 큰 원형 돔지붕(주축을 이루는 중앙의 돔)으로 이루어졌으며 평면은 각 이진 4각 모양에 지붕부분은 전체가 둥근 돔으로 이루어졌으며 창문이나 개구부는 원형아치로 조합을 이루고 외부는 전체가 하얀색의 화강석 제동으로 잔다듬으

로 깎아서 모양을 이룬 19 세기에 있어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이라고 보겠다. 높이가 91 미터인 종탑은 라사보아 지방 사람들의 기증품이라 하여 라사보야르트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서구라파 최대의 종(18톤 735킬로그램)이 걸려있다고 한다.

이 교회의 내부의 특징은 정중앙 성단 천정이 공의 내부와 같은 면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스런 모습을 모자이크 한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으며 그 밑의 정면 성단 즉 강단부분을 매우 신비스럽게 꾸몄다고 보겠다.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성경적 인간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적 인간관이나 철학적 인간관과 다른 점이다.

진화론적 인간관은 인간이 미생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고, 철학적인 인간관은 인간을 우주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었으나 인간이 타락하여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격적 자유, 의, 성결, 진실 등을 포함한다.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고 동물적인 생활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요 1:18; 고전 15:45)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때이다. (눅 15:8-10; 골 9:10; 엡 4:22-24 참조)

그러면 아담이 처음으로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아담은 잃어버렸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눅 15장 참조)

2. 인간의 구성과 영혼의 기원

1) 인간의 구성

인간의 구성에는 두가체 견해가 있다. 하나는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있다는 이혼설(二混說)이고 다른 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삼혼설(三混說)이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육과 영으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창 2:7 참조) 구약에 보면 혼이란 말을 “네펜쉬”(헬라어로 “푸쉬케”)라

했고 영이란 말을 “루하”(헬라어로 “푸쉬마”)라 했는데 이상 두 단어는 각각 다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육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끔 육을 가리켜 “진토”라고도 했다. 그렇다고 육과 진토가 다른 것은 아니다. 영과 혼의 관계도 이와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인간 구성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 이하의 존재도 될 수 있고 천사와 같은 존재도 될 수 있다. 천사는 영은 있으나 육은 없고 동물은 육은 있으나 영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영적 욕망도 있고 동물과 같이 살려는 영적 욕망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이 두가지 욕망중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가치있는 존재도 될 수 있고

무가치한 존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내촌감삼은 말하기를 “인간이 영을 따라 살려고 할 때는 육이 괴로와 하고 영을 버리고 육을 따를 때는 영의 사람이 탄식한다”고 했다.

2) 영혼의 기원

인간의 영혼의 기원은 대개 세 가지 학설로 나타나 있다.

① 선재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선재설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아담이 처음 지음받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육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결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재설은 성경적이 아니고 헬라의 철학사상에서 유래하였다.

② 유전설

유전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개인 개인의 영혼이 아담안에 포함되었던 것이 부모들의 자연 생식을 통하여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선재설은 개인의 영혼이 아담과 관계없이 개별적 형태로 있었다고 보나 유전설은 개별적 존재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유전설에는 난해한 점이 없지 않으나 장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유전설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째, 영혼을 혼합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는 분할할 수 있으나 개인의 영혼은 분할할 수 없다. 둘째, 유전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무죄 교리를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창조설

창조설은 지금도 개인의 영혼을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이다. (시 139 : 13-16)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모태에서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개인의 영혼도 인간의 육체가 형성될 때 창조하신다는 것이다.

이 창조설은 칼빈을 비롯하여 많은 개혁파 학자들이 믿어 왔다.

창조설의 장점은 육체와 영혼을 혼돈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한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신은 동질이거나 육체가 발달하여 영혼이 되거나 영혼이 퇴보하여 육체가 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질적 요소의 결합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고 영혼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오늘날 창조설은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전 12 : 7 ; 히 12 : 9)

육체의 조상(부모)은 각각 다르나 영혼의 아버지는 같으며 육체적으로는 노인과 어린애의 차이가 있으나 영혼의 아버지는 다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영혼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창조설의 다른 장점은 그리스도의 무죄 교리를 설명하는데도 유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전설과 창조설 두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여기에 대하여 어거스틴(Augustine)은 어느 한편을 택일하지 않았

다. 그것은 두 가지 학설이 개인 영혼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꼭 택해야 한다면 창조설을 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설은 유전설보다 단점이 적고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3. 인간의 죄성

1) 원죄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선행은 믿음을 전제로 한 선행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 선행이라야 진정한 선행인데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 율법의 대 강령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고 있다. (사 48 : 8 ; 창 8 : 21) 원죄는 모든 인간이 행동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아담안에서 범한 죄이다. 원죄는 인류의 시조에게서부터 유래한 것이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죄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 무죄한 인간이 세상에서 죄의 모방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의 남용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은 인간 외적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 범죄란 외부적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행위계약의 표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벌써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

을 위반한 결과다.

윌리엄·셰드(William G. T. Shedd)는 그의 교의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죄란 무한한 의지(하나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유한한 의지(인간)에게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죄는 불완전한 것인데 완전한 데서는 불완전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죄는 인간에게 어떤 비극을 안겨주었을까?

①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져왔다.

인간에게 죽음 이상 비극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은 바로 원죄때문에 왔다는 것이다. (롬 5 : 12)

② 유전병을 가져왔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질병이다. 만약 인간에게 질병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질병은 원죄때문에 나타난 부산물이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이 자손들에게 유전된다.

③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제삼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의 해결은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제삼자가 와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2) 죄의 성질

그러면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①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퍼진다. 이와 같이 죄의 성질은 유행병과 같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맨 처음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에게 번졌고(창 3:6) 그 자녀들에게 퍼져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창 4:8)

한 가정의 죄가 나중에 전 세계에 번졌다. 노아 시대에는 한 가정 한 지방만 아니라 온 세상에 관영하여 마침내 홍수 심판을 초래해 하였다.(창 6장)

② 죄는 방해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사 59:1-3) 또한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교제도 방해한다.(민 5:23-24) 둘째로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한다.(렘 5:25; 사 1:19)

③ 죄는 고착성이 있다.

고착성이란 인간의 마음에 들어 오기는 쉽게 들어오나 끊어버리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죄는 고착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는 일에 용단을 가지라 했다.(마 18:8)

④ 죄는 멸망성을 가지고 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욕심은 죄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죄는 또 사망이란 아들을 낳는 것이다.(롬 6:23)

3) 인간의 전적부패

인간의 전적부패 교리는 칼빈의 5대교리중 하나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자기의 힘으로 회개하든지 또는 회개에 이르는 준비를 할수 없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3항) 이 말은 인간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 보기에선 선을 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시는 선행은 믿음을 전제한 선행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서 출발한 선행이라야 진정한 선행인데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 율법의 대 강령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인격전체, 즉 지(知), 정(情), 의(意)가 타락했다는 것이다.

① 지성(知性)이 타락했다.

이 말은 인간의 지성이 활동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은 과학, 철학, 문학, 예술, 교육등 각 분야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타락했다.(고전 1:19-20; 갈 5:24); 엡 4:17-18)

② 감정(感情)이 타락했다.

(엡 4:22; 갈 5:24) 인간의 감정이 타락한 증거는 인간이 보고 기뻐해서는 안될 것을 보

고 기뻐한다. 그 예로는 정상적인 스포츠가 아닌 피흘리는 경기를 보고 좋아 한다든지 퇴폐적인 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것 등이다.

③ 의지(意志)가 타락했다.

루터(M. Luther)는 말하기를 “인간의 자유의지란 사실상 잃어버린 말에 불과하다. 내말대로 말한다면 인간의 자유란 전연 없는 것이다.”고 했다.

칼빈(J. Calvin)도 “타락한 인간은 죄악의 노예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의 자극을 자신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다” 계속해서 그는 또 말하기를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했다는 말은 악에 대한 행위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선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악에 대하여 자유하는 것처럼 인간은 악에 대한 자유는 있다. 자기 충동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는 정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만날 때는 선에 대한 능력과 악에 대한 능력을 분별해야 한다.”

타락한 인간이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 선행을 하려면 악에서 떠나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다.(롬 7:17; 렘 13:23; 요 8:44; 2:24; 마 5:33-37)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인 것 같이 우리 마음의 주관자도 그리스도 이어야 합니다”

권찰이 갖추어야 할 일 (7)

교인 가정을 심방하는 권찰들은 교인의 영혼을 위하는 일꾼들만큼 조심하며 주의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몇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심방하는 권찰들이 주의할 점

1) 집에 들어설 때 주의할 점

- ① 예배드릴 좌석을 잘 정해 앉는다.
- ② 심방중에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않는다.
- ③ 심방받은 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를 가진다.
- ④ 심방하는 자는 무엇에서나 교만한 자세를 버린다.
- ⑤ 심방하면서 장사행위를 하지 말라.

2) 길에서 주의할 점

- ① 떠돌거나 음식물은 먹으며 다니지 말아야 한다.
- ② 길에서 만난 사람과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 ③ 길가운데로 다니거나 좌우로 이리저리 다니지 않도록 한다.

3) 예배중 주의할 점

- ① 영혼구원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한다.
- ② 위로와 축복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 ③ 격려와 새 힘을 갖게하여 내세를 바라보는 내세분위의 생활을 하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한다.

4) 목사님과 같이 심방할 경우 주의할 점

- ① 엄숙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질서를 유지한다.

예배드리는 중에 주장자가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 목사님보다 앞장서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 ③ 목사가 좌석을 배정하는대로 앉아야 한다.
- ④ 예배드리기 전에 경솔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 ⑤ 예배드리기 전에 구역카드를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⑥ 경건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한다.
- ⑦ 예배후 목사가 심방받는 가정에게 질문했을 때 권찰이 대신 대답하지 않도록 한다.
- ⑧ 예배를 마치고 집을 나올 때까지 권찰이 취해야 할 태도를 잘 지킨다.
- ⑨ 구역 권사님들은 심방할 때나 받을 때에 권찰의 임무를 항상 잘 가르치도록 한다.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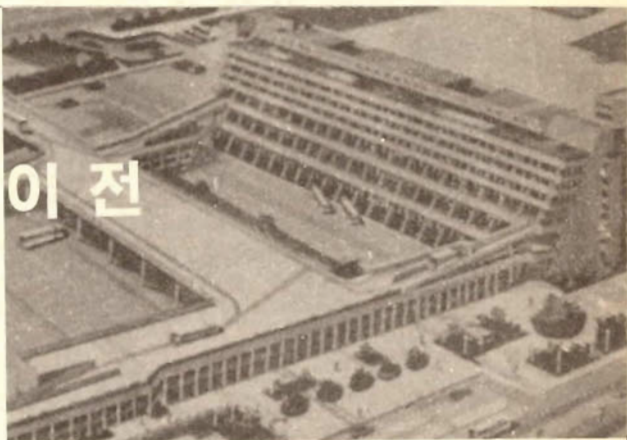
창업 48년의 신용



남 문 당 이 전

전화 : 599-3776, 593-0192

金正泰 집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2층 5호로 이전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인도네시아 - 서 만 수 선교사

1. 영주비자 발급됨

할렐루야! 금년 9월은 인도네시아 선교 10년이 된 달이었고 지금까지 27개처의 오지사역의 축복 위에 더하시는 상급으로 서만수 선교사님에게 영주비자가 나왔습니다.

800명의 유자격 신청 선교사 중 650명만이 접수되었고 그중 영주 비자는 9월 23일자로 서만수선교사님 가족에게만 발급되었습니다. 참으로 천만뜻밖의 일이라는 현지소식입니다.

2. 한인연합교회 부흥회 예정

본부 한영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금년 11월 16일~21일까지 부흥회 개최 예정

* 기도제목 *

- ① 할렐루야회관 신축을 위해
- ② 출국이 불가피한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

홍 콩 - 홍 종 만 선교사

홍선교사님은 계속 본국에서 정양중이시며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콩한인교회를 일시 방문하고 귀국하셨습니다.

홍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계속 건강이 좋아지고 계시며 본국에서도 여전히 홍콩선교 등의 제반업무들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 기도제목 *

- ① 홍선교사님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
- ② 홍콩한인교회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 ③ 홍콩내 교포들 전도의 계속을 위해

애 굽 - 이 준 교 선교사

- ① 카이로 한인교회 및 동산토건회사 공사현장(살라 및 걸코현장)에백을 은혜중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 ② 헬와 복음주의교회, 헬리오폴리스 복음주의교회등을 방문하며 설교 등을 하였습니다.
- ③ 9월 4일 에는 동산토건 걸코현장 직원 및 기능공(39명) 인출하여 카이로 일대의 고적지탐방 안내하였습니다.
- ④ 9월 23일 애굽복음주의 교단 총무사무실 방문하고 지교

회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⑤ 9월 24일 카이로 아메리칸대학·아랍어 과정(Intermediate Course) 에 등록

* 기도제목 *

- ① 카이로 한인교회 및 애굽 현지인 지교회들을 위해 계속 기도부탁.
- ② 애굽의 국내사정이 어렵고 모슬림과 크리스찬과에 잦은 충돌이 있으므로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 독 - 육 호 기 선교사

유럽전도대회를 계기로 육선교사님의 위치는 전 유럽에 걸쳐 더욱 중요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의 유럽선교를 위해 선교관을 계약 하였고 그 구입 및 운영계획을 계속 기도중입니다.

* 기도제목 *

- 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② 유럽을 향한 복음 역수출의 성공을 위해.
- ③ 82년도의 세계대회 개최 및 성공을 위해

호 주 - 김 태 현 선교사

청년부를 처음으로 조직하고 청년회 헌신에백을 드렸고 교우들의 심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9월 20일에는 교회건물 사용문제로 특별 모임을 갖고 새해의 예배처소 변경을 의논했습니다. 9월중 17일간 선원선교 활동을 계속하였고 9월 21일에는 도덕재무장센터를 방문하고 현황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 기도제목 *

- ① 예배처소를 잘 마련하도록
- ② 호주전역에 걸친 선교 및 선원선교활동을 성공을 위해

아르헨티나 - 백 성 룡 선교사

아르헨티나는 지금 사상 최악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교포들이 사업을 실패하며 직장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한인교회 교우들도 매우 고생을 하고 있으며 백선교사님 및 사모님과 자녀들의 고충도 큼니다. 그렇지만 한인교회

해외선교지 · 선교사 소식

는 단합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왔고 또 앞으로
도 아르헨티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을 믿고 전도 및 선교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 ① 아르헨티나의 경기회복을 위해
- ② 한인교회의 안정 및 성장을 위해
- ③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위로를 위해

파라과이-김 재 창 선교사

파라과이는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선교에도 고충이
있으나 한인교회는 김복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고 난
후 파라과이 선교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과 특히 원
주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원주민 선교지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 ① 선교사님 및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
해.
- ② 원주민 선교가 더욱 충실해지도록

인 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공한미작

* 기도제목 *

- ① 푸릭어 성경번역작업이 성공되도록
- ② 카쉬비르 복음동지회(K. E. F)와의 협력이 잘 되
도록.
- ③ 새로운 선교영역(농업기술지도 등)을 개척하도록

칠 레-유 재 일 선교사

- ① 9월 1일 칠레성서공회정기회의 참석 ② 9월 7
일 산티아고 고아원 실무자회의 참석 ③ 9월 20일
성서주일 지키고 \$ 500을 성서공회에 보냄. ④ 9
월 26일 칠레 제1고아원을 정기방문하고 설교(고전
무용 및 태권도시범, 학생가운 40벌, 성경 40권 등
기증) ⑤ 9월 28일 대사관직원들을 본 선교부로 초
대하고 친교와 대사환영 및 무관송별회를 겸함.

그동안 교회는 사단법인정관허가를 기다리고 있으
며 원주민 현지 전도사들을 채용코자 기도하고 있으
니다.

* 기도제목 *

- ① 칠레선교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위해.
- ② 교회골조공사 착수를 위해.
- ③ 원주민 전도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일 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일시 귀국중
본부에서 배운 갖가지 호의에 거듭 감사한다는 소식
을 보내오셨으며 새로운 임지 에리모 진로소를 통한
선교와 광미교회설교까지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9
월 9일 이권사님 광미교회에 가서 부인성경만 인도,
9월 13일 광미교회에서 주일예배(선교 시121편), 9
월 18일 주위 병원 방문하여 중현교회 평신도선교사
임을 밝히고 복음전도하는 등 계속 전임지와 새임지
에 걸친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 ① 51km 떨어진 광미교회 왕래시 교통위험을 막아주
시도록.
- ② 새임지 에리모에 주님 능력이 계속 더해서서 복
음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 ① 9월말 이사하심. ② 10월 중순까지 논문을 정리
하였고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고 있음. ③ 학원내 전
도에 힘쓰고 있음.

* 기도제목 *

선교사님의 건강 및 논문통과를 위해.

본부소식-해외복음선교회

1. 협동선교사님 취임-리차드 킬(RICHARD KE
EL)목사, 팀(Team) 선교부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11년간 선교활동하시던 킬 선교사님이 10월부터 본
교회 협동목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월간교계 뉴스

장로교단총회 성료

예장(합동) 총회장에 최성원목사 선임

장로교단 총회가 은혜롭게 폐회되었다.

기장(基長)은 9월 22일부터 서울 초동 교회당에서, 그리고 예장 합동, 통합, 고신은 9월 24일부터 대전 중앙, 부산 영락, 부산 대신동교회당에서 각각 열렸다.

합동총회는 교회설립 1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총회 회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통일교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제명처분키로 했다.

고신(高神)총회는 농어촌교회 자립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교회설립 1백주년 행사위원을 구성했으며, 통합측 총회는 장로가 부총회장이 되는 이변을 낳는 가 하면 계속 거론되어온 여성 안수문제가 부결되고, 구속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이들을 총회적 차원서 돕기로 결의했다.

기장총회는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는 한편 구속자에 대하여 석방진정을 하도록 결의했다.

새로 선임된 각 교단 총회장 및 부총회장은 다음과 같다.

△ 예장(합동) = 총회장 : 최성원목사(56세·전주제일교회), 부총회장 : 김현중목사(전농교회), △ 예장(고신) = 총회장 : 최일영목사(62세·대신동교회) 부총회장 : 서완선목사(부산 북교회) △ 예장(통합) = 총회장 : 고현봉목사(63세·부산 영락교회), 부총회장 : 조세환장로(성암교회), △ 기장 = 총회장 : 박형규목사(59세·서울제일교회) 부총회장 : 송상규목사(함열교회)

순복음중앙교회 교단탈퇴

순복음중앙교회(조용기목사 시무)는 지난 10월 소속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탈퇴했다.

교단 탈퇴에 따른 순복음교회 성명에 의하면 「동교회는 창립 이래 23년간 20만 성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선교에 전념해 왔으며 교단의 이념과 헌법을 존중 준수할 뿐 아니라……」고 전제하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내 일부 교역자와는 뜻을 같이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 아니나 10월 12일자로 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로부터 탈퇴한 것을 선언하며 선교회측과는 관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교단측은 「교리문제에 있어 조용

기목사가 죽은 자에게 제사할 때 절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 내용(테이프 보관)과 개인이 목사 안수를 자행한 사실(40여명의 명단 보관)은 일개인의 행위로서 교단의 교리와 헌법에 위배되므로 실행위원회에서 거론되어 선출된 위원으로 하여금 시정을 요하고자 3차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응해 오던 중 지난 14일 조선·한국일보에 급기야 스스로 탈퇴를 성명하였으므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본 교단과 무관함을 천명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바울의 집」개관

선교사 교육·훈련 센터로

선교사 양성 수도원이 되는 바울의 집이 지난 10월 15일 개관되었다.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월문리의 1만평 대지위에 세워진 바울의 집은 수도자적 영적지도자와 지식인으로서의, 또는 국제인으로서의 지도력을 기르는 집이 될 것이다.

동 바울의 집은 2백 5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기숙사 1동을 비롯하여 회의실, 연구실, 도서관,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춘 본관과 동시에 1백5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동 바울의 집은 동서선교연구개발원(원장 : 조동진)에서 신축한 것인데 바울의 집 대표는 조동진목사이다.

문선명 교주 기소(起訴)

미국 검찰서 탈세혐의로

미국 사회에서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탈세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미국의 뉴욕타임즈 1면과 CBS 텔레비전을 비롯한 뉴욕의 모든 전파매체의 톱뉴스로 일제히 보도되었다.

고소장에 의하면 문교주는 자기 이름으로 뉴욕은행에 1백50만달러를 예금했는데 그 예금에서 73년부터 75년까지 취득한 이자 10여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않고 탈세했으며, 지난 73년에 기업투자로 얻은 이익금 5만달러를 소득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월 중 새교우 명단

-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지구

길음3구역 장춘복
쌍문구역 구별회
도암구역 고순례
미아7구역 손금주
미아3구역 유창우
용두구역 이명훈
상계2구역 이은구
중암2구역 이종훈
수유2구역 서정연
동소문구역 김충웅
도봉1구역 전은숙
상계2구역 유구욱
쌍문구역 정숙자
용두구역 손복순
광희1구역 나봉녀

● 2지구

장안구역 박종수
중화1구역 김옥순
도선구역 진병숙
망우1구역 이윤표
홍익구역 박용원
둔촌1구역 김취섭
이문2구역 임성숙
황학구역 권갑숙
황학구역 김혜영
마장구역 윤종필
회경구역 박익순
진봉2구역 손춘자
전봉1구역 박순복
마장구역 윤석후

● 3지구

신당4구역 손정희
장충5구역 정찬운
신당5구역 박혜숙
성수1구역 김장근
자양2구역 함이나
쌍림3구역 문금안
쌍림4구역 최영심

● 4지구

묵정2구역 오장용
한양구역 남남경
선정1구역 마도원
묵정3구역 고경희
성남구역 박귀림
역삼구역 서희승
강남구역 허길남

선정1구역 김성숙
삼성구역 이성숙
선정1구역 박현만

● 5지구

시흥구역 김영옥
회현구역 박종준
안양구역 문향숙
상도3구역 홍신유
설악구역 최인실
봉천1구역 손경희
방배1구역 김정수
신림1구역 박용분
인양구역 최해욱
팔동3구역 손기적
사당1구역 최해림
대방1구역 제숙희

● 6지구

망원2구역 우용자
공항1구역 박종국
대흥구역 편기숙
여의도구역 손은주
구로구역 장정미
화원구역 강민숙
서교구역 김상춘
용문구역 조은주
정파구역 이성자
마포구역 고희숙
화곡1구역 김옥순
북아현구역 박형식
대흥구역 정지남
인원1구역 심재순
합정구역 최정문
염리구역 정선화

● 7지구

율지2구역 박재순
장신2구역 신필수
역촌2구역 조홍남
홍제구역 이계성
장신2구역 임선희
효자구역 김지선
오장구역 조성기
용암2구역 송효중
가회구역 김혜림
송인1구역 함동원
용암2구역 김차남
망원1구역 김화경
종로구역 박인규
송인1구역 정경도
장신2구역 빈미숙

* 축하합니다. (10월 중 결혼)

- 최 건군(박영순집사 아들) 5일
- 이해숙양(마장구역) 5일
- 박용수군(허인순집사 아들) 8일
- 조용남양(조범식집사 이옥현권사 딸) 9일
- 장병숙양(장병기집사 동생) 9일
- 오광한군(안정애권사 아들) 9일
- 김정민양(박순옥권사 딸) 12일
- 박병채군(영아부교사) 15일
- 이정홍군(유년부교사)과 김인화양(미아구역) 16일
- 우윤근군(우성원장로 아들) 17일

- 김경옥양(강보민집사 딸) 17일
- 신미옥양(신문현씨 이승자집사 딸) 19일
- 이영태군과 김영아양(청년부회원) 19일
- 장대희군(장덕옥씨 박우순권사 아들) 22일
- 한시형군(한관수씨 김정자씨 아들)과 김경희양(홍은구역) 24일
- 조기행군(조성행집사 동생) 28일
- 이용근군(이희권집사 최춘란권사 아들) 31일

* 위로드립니다. (10월 중 별세)

- 조남석씨(홍재옥집사 부군) 5일

□ 교회소식 □

새로 부목사 6명

교회는 지난 10월 13일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6명을 부목사로 청빙했다. 한편 이날 본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수고하던 유국남, 안석련, 이양우전도사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이로서 우리 교회는 14명의 부목사들이 수고하시게 되었다.

금번에 부목사로 초빙된 분은 다음과 같다.

- 김형희목사(해외복음 선교회지도·선교부지도)

- 조준상목사(고등부지도·북한 선교분과지도)

- 최봉호목사(성경연구원지도·중등부지도)

- 박동실목사(산업전도교육부지도)

- 허충옥목사(대학부지도)

- 오치용목사(선교부 부지도)

추계 성례식 마쳐

교회는 지난 10월 8-11일 까지 추계 성례식을 모두 마쳤다.

금번 추계식은 학습·세례문답 및

성찬식으로 은혜 가운데 마쳤다.

추계 성례식에서 문답·세례를 받은 사람은 540명 이었다.

구 분	남	여	계
학 습	73	124	197
세 례	79	150	229
유 세	52	42	94
입 교	8	9	17
개 종	2	1	3
계	214	326	540

11월12일 오후3시, 논현동 현장에서

새성전 상량예배

교회는 오는 11월 12일(목) 오후 3시, 논현동 새성전 건축 현장에서 새성전 상량예배를 드린다.

지난해 4월 8일에 착공 예배를 드린 후 1년 7개월만에 상량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2일에 상량예배를 드림으로 외부 골조공사를 거의 끝마치게 된다. 본당, 교육당, 선교센터의 모든 골조공사가 거의 끝나 이제 전체 공정의 30%를 완료하게 된다.

교회는 내년도(82년) 말을 완공 목표로 하고 각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고 있다.

1982년도

당회, 각부서장 임명

당회는 1982년도 각 부서의 부서장을 확정하고 임명했다.

현재 홍콩선교사로 수고하시는 홍종만목사가 내년에는 귀국하시어 교회에서 일하시게 된다.

당회서기 / 윤종순장로, 당회부서기 / 이태규장로

예배위원회위원장 / 홍 종 만목사
전도위원회위원장 / 장 정 일목사
교육위원회위원장 / 홍 종 만목사
심방위원회위원장 / 김 원 남목사
재정위원회위원장 / 이 응 선장로
건축위원회위원장 / 김 기 정장로
자산관리위원회위원장 / 윤 중 성장로

감사위원회 수석위원 / 정 석 태장로

인사위원회 수석위원 / 윤 중 순장로

사무국 국장 / 최 석 주 장로
출판국 국장 / 조 현 명장로
성경연구원 원감 / 김 차 생장로
동산 및 기도원 관리위원장 / 이동규장로

해외복음선교회 회장 / 최 석 주장로

한영절목사

인도네시아에서 부흥회

기도원 지도목사인 한영철 목사가 오늘 11월 16-21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출국하신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서만수선교사가 초청,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게 된다.

부지도 임명

교회는 그동안 공석중인 청년부 및 산업전도교육부의 부지도를 김성주전도사 및 정관호전도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주·정관호전도사는 현재 합동신학원 2학년에 재학중이다.

자매결연 맺어

교회는 미국 시카고의 미현교회와 청원을 받아들여 미현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

□ 인사이동 □

1. 예배위원회

1) 성가대

① 임명

제 1 성가대	김성현	테너
제 1 성가대	김영미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홍정화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김병희	알토
제 3 성가대	이상주	테너
제 3 성가대	최윤순	베이스
제 3 성가대	김종국	베이스

② 퇴임

제 1 성가대	이희상	베이스
제 1 성가대	정수일	베이스
제 1 성가대	김영희	소프라노
제 1 성가대	조영희	소프라노
제 1 성가대	이희숙	소프라노
제 1 성가대	고제숙	알토
제 1 성가대	남경희	알토
제 1 성가대	지은영	알토
제 1 성가대	김미지	알토
제 1 성가대	남명우	알토
제 3 성가대	권현숙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권희순	소프라노
제 3 성가대	신경희	알토
제 3 성가대	박창교	베이스

1. 교육위원회

1) 주일학교

① 임명

어새부	손별석(남)	정교사
어새부	장춘복(여)	임서교사

어새부	장병화(여)	임서교사
유치부	홍성선(여)	임서교사
유치부	김은희(여)	임서교사
유치부	임인숙(여)	임서교사
유치부	임미숙(여)	임서교사
유년부	강동화(여)	임서교사
유년부	정현주(여)	임서교사

② 퇴임

유치부	이재덕(남)	타교회
유치부	임연희(여)	타교회
유년부	이성적(남)	타교회
유년부	이옥자(여)	타교회
유년부	황옥남(여)	타교회
유년부	이관호(여)	타교회
유년부	김관용(남)	타교회
중등부	허인경(여)	이민

□ 토막소식 □

*...어린이새신자부는 11월 26일 새가정부에서 교사철야기도회를 갖는다.

*...영아부는 11월 15일 상도동에 있는 시몬요아원을 방문하여 원아들과 시간을 가지고 24일에는 영아부 주요생의 학부모를 초청하여 화답회를 개최 계획이다.

*...유치부는 11월 8일 유치부실에서 성경이야기대회를 가지고 15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녁 예배시간에 특별순서를 가지며 감사절 행

사를 가진다. 또한 16일에는 고아원인 「성노원」을 방문하고 24일에는 「어린이전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유년부는 11월 20일 교사철야기도회를 영아부실에서 갖는다.

*...초등부는 11월 15일 시흥육아원을 방문하고 또한 저녁에는 어린이 초청전도집회를, 27일에는 6학년 졸업생의 학부모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등부는 11월 15일 수원양로원을 방문하고 17일에는 지도교역자가 학원방문예배(성일중)를 하며 22일에는 연구수업을 할 계획이다.

*...고등부는 11월 8일 면려회 정

기총회를 14일에는 성극발표회를 갖고 15일은 양로원을 방문하며 또한 면려회 회보를 발간한다. 또 28일에는 임원수련회를 유년부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대학부는 지난 10월 11일에 면려회 총회를 갖고 회장에 박현주군, 부회장에 이명숙양을 각각 선출했다.

11월 1일에는 학급재편성을, 3일에는 반장훈련을, 15일에는 양로원 방문을 하였다.

*...청년부는 지난 9월 20일 청년부 면려회 총회를 갖고 회장에 권명옥 집사를 부회장에 정정식·신정희씨를 각각 선출했다.

*...장년새신자 1부는 11월 22일 학생신앙간증회를 갖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장년새신자 2부는 11월 18일 수료식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20일에는 남자 1명, 여자 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주례에 김창근목사, 손동운장로가 배석했다.

*...노년부는 11월 15일 김영희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선교지 순방」에 대한 특강을 할 계획이다.

*...산업전도교육부는 11월 15일 반별성가경연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선교부는 11월 20-22일 선교지역발표를 교회들에서 가질 계획이다.

각 종 통 계

1981. 10. 4 (매월 첫 주 기준)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에배후
- 매주 수요일에배후 9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1번 버스를 타고(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화 101번을 거셔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일	I 부	228	410	총세대수	4,286
		II 부	549	1,059		
		III 부	388	830		
		IV 부	229	531		
	계	1,394	2,830	4,224		
배	주 일 저 녀	247	517	764	교인 총수	남 3,825
	삼 일 저 녀	189	405	594		여 5,656
	계	436	922	1,358		계 9,481
주	일	어린이새신자부	31	24	신 급 생 입 교	남 1,986
		영 아 부	213	165		여 3,407
		유 치 부	154	164		계 5,393
		유 년 부	185	241		남 511
		초 등 부	204	201		여 417
		중 등 부	176	180		계 928
		고 등 부	128	169		남 300
		대 학 부	65	46		여 387
		청 년 부	63	105		계 687
		장 새 I 부	50	135		남 1,028
학	교	장 새 II 부	14	55	원입 교인	여 1,416
		장 년 부	29	278		계 2,444
		노 년 부	42	108		
		산 업 교 육 부	19	87		
		선 교 부	18	37		
교	학	새 가 정 부	21	37		
		합 계	3,242	5,784		
				9,026		

11월의 행사

1일 / 정기제직회 재정위원회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

8일 / 남전도회 월례회(정기총회) 권사회 월례회

12일 / 새성전 건축 상량예배

15일 / 추수감사주일

재정위원회 · 여전도회 · 심방위원회 · 자산관리
위원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2일 /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 건축위원회 월례회

29일 /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편집하고 나서

*...연말을 앞두고 교회내가 매우 분주하다. 1년을 마칩하는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이 있음은 한층 더 우리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는가 싶다.

감사절을 특집으로 감사절 기도문과 감사절에 관한 지상특강, 설교 등으로 구성했다.

왜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언제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특집을 통해서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감사를 매어 생각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등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훨씬 넘치는 감사가 나오리라고 생각

된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의 해외선교여행 보고서를 실는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고무적이며 발전적인 글에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각 부서가 분주한 가운데 있다. 월간총현 편집실에서도 내년에는 금년보다 좋은 책을 내도록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며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격의없는 비판과 충고를 바란다.

*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김정태

월간총현

11월호

제9권제10호

통권 제93호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조현명

편집부장 / 이형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1년 11월 8일 발행

100 -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60 - 3407 · 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추계 성례식 중 문답장면, 10월 8 9일 양일간에 걸쳐 문답을 했다〉



〈10월 9일 저녁에는 세례식을 베풀었다. 이날 세례식에는 총 540명이 문답과 세례를 받았다〉



〈10월 11일 1, 2, 3, 4부 예배시에는 성찬식을 거행,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했다〉



〈유치부는 10월 9일 경북궁에서 반별 그림그리기 대회를 가졌다〉



〈영아부는 10월 20일 반별 십계명외우기대회를 가졌다. 영아들은 십계명 노래로 십계명을 외었다〉



〈미국 뉴우욕의 빌립보교회의 이종표목사가 일시 귀국, 빌립보교회와의 자매결연패를 전달했다〉

실로
영
못가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땅을 물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136 : 1 - 9〉